

대학원 중심의 4+2년제를 주장하는 이유

Reasons Behind the Reform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김광현 교수의 글(2월호)에 대한 해명

이상헌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by Lee Sang-Heon

본지에서는 지난 2000년 1월호에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이란 주제로 기획특집을 마련, 교육관련 부문을 이상헌(건국대 건축대학원)교수에게 집필 의뢰하여 '건축교육개혁방안 ; 학부 5년제 문제 있다'는 내용의 원고를 게재하였고, 이후 이교수의 글과 관련하여 김광현(서울대 건축학과)교수는 학부 5년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으며, 이교수의 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 '학부 5년제 문제 있다는 주장의 문제'의 글을 기고하여 본지 2월호에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상헌교수는 '학부 5년제 문제 있다는 주장의 문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김광현교수의 글은 필자의 글에 대한 의도나 생각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필자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 '대학원 중심의 4+2년제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글을 3월호에 게재코자 기고하였다. 그러나 지면관계상 3월호에 게재하지 못하고, 이번호의 '기고'지면을 통해 게재코자 하며, 아울러 지난 1, 2월호 본지를 통해 게재된 건축교육 관련내용에 대한 필자의 글과 본란의 글은 우리 협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편집자주)

필자의 글에 대한 김광현 교수님의 비판은 필자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제한된 지면에서 주장을 하다보면 표현의 섬세함이 떨어질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 광현 교수님의 글은 많은 부분 필자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필자의 전체적인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번 글에 대해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필자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를 느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먼저 김 교수님은 필자가 "마치 5년제 교육을 실시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쓴 표현에 대해 "5년제를 주장하는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근본적 문제의 소지를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필자의 주장은 건축교육의 개혁에서 형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고, 현재 형식의 문제를 논하면서 당연히 함께 거론되어야 할 교과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적한 것이다.

또 형식의 문제도 4+2년제와 5년제의 면밀한 비교검토보다는 UIA의 최소 5년 이상이라는 규정의 "5년"에 집착하여 전체적인 분위기가 5년제로 쉽게 편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물론 5년제를 주도하는 학교들은 나름대로의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다수의 학교는 피상적인 정보밖에 접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비가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필자의 글이 마치 5년제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용의 개혁에는 관심 없고 형식의 문제에만 집착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읽힐 소지가 있었다면 이것은 필자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학부 5년제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UIA의 권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소 5년 이상의 교육기간”이라는 형식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인증을 위한 교육내용의 문제이다. 필자는 지난번 글에서 형식의 문제만을 언급했다. 내용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용의 문제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증을 위한 건축교육 내용의 개혁에 대해서 필자는 몇몇 소장 교수들과 함께 지난 수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 개략적인 방향을 책으로 정리해 낸 바 있다. <한국 건축 교육의 미래>, 발언, 1999) 최소 5년 이상의 교육이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가능한 개혁의 방향은 5년 학부제와 6년제 대학원 중심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필자가 쓴 글의 주제는 이 두 가지 형식의 장단점과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어느 것이 한국적 현실에서, 또 국가 전체의 안목에서 합리적인 방향인가를 따져 보자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필자는 UIA의 권고사항인 “최소 5년 이상의 교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5년제와 4+2년제 중 어느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더 합리적인 제도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학부 5년제 만이 “국제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4+2년의 대학원 중심제와 학부 5년제는 선택의 문제이며, 4+2년제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 4+2년제의 장점을 주장한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학부 5년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교육개혁의 방향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4년제 학부의 개혁에 대한 문제

4+2년 대학원 중심의 건축전문교육의 장점을 주장하는 필자의 의견을 마치 개혁의 의지가 없이 현행 4년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듯이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필자는 지금의 4년제 교육내용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고 하지 않았다. 지금의 4년제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 다만 필자는 글의 주제를 5년제와 4+2년제의 형식 문제에 한정했고, 4년제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는 단순히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필자가 마치 4년제 교육내용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말한 것처럼 예단하고, 하지도 않은 주장에 대해 비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정

하지 않다.

5년제든 4+2제이든 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5년제를 하더라도 내용을 개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 대학원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현재의 학부 4년이 그대로 안주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부 5년제를 실시해야만 교육의 내용을 개혁할 수 있고, 대학원 중심제 하에서는 내용을 개혁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4+2년제 하에서도 4년제 학교가 좋은 대학원에 많은 학생을 진입시키려면 스스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4년제 학교는 자연스럽게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리될 것이며, 아니면 아예 설계가 아닌 건축공학전공으로 특화해야 할 것이다. 즉, 개혁의 주된 방향이 대학원 중심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4년제 교육의 내용의 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의 과정이 교육개혁을 이루어 내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다.

쉽게 지방에 있는 그다지 조건이 풍족하지 못한 4년제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서울의 상위권 주요대학이 대학원 중심으로 가면 이들은 당장 5년제나 전문대학원을 만들 여력이 없다하더라도 설계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열심히 가르쳐서 상위권의 전문대학원에 진입시키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들은 가능하면 많은 학생을 진입시키기 위해 교육내용을 개혁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아예 공학전공으로 바꾸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학교는 향후 5년제나 전문대학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개혁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여력이 있는 학교들이 학부 5년제로 울타리를 쳐 버리면 자체적으로 건축전문학위과정을 만들 수 없거나 건축공학으로 특화할 수 없는 학교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게 된다. 이들 학교에게 당장 생사의 갈림을 강요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볼 때 공정성과 책임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4년 학부교육 목표의 불명확성

4+2년의 대학원 중심으로 가면 학부과정의 교육목표가 불분명해져서 학부 4년 과정은 건축교양과 정정도로 설계도 공학도 아닌 것이 되어 전문교육의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4+2제가 학부 5년제에 비해 학부과정의 교육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학부 5년제가 대학원 중심제보다 교육의 일관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언급했듯이 우리 나라는 적성에 따른 전문직능교육이 학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초중고 교육의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학부제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직능 교육체제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또 최근 전통적인 학문의 정체성과 경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과 학제간의 통합 및 새로운 영역의 발생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건축에서도 전통적인 건축가가 아닌 건축관련 새로운 전문직종이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건축가를 양성하는 설계중심의 교육을 폐쇄적인 학부 5년제로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있다. (아마도 이런 문제가 극복되면 AA 스쿨과 같이 규모가 크고 특화된 건축학교로의 독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4+2년제에서 학부과정의 상대적인 교육목표의 불분명함은 오히려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 밖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의 글에서도 정리한 바 있다. 굳이 문제를 제기하자면 4+2년제 하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건축설계교육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가 인데 이것은 뒤에 서술하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4+2의 대학원 중심제는 여러 가지로 편리한 방식인 것이다.

4+2의 대학원 중심의 교육이 마치 학부는 아무 것이나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건축 대학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4년제 건축학과에서 충분한 설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학부와 대학원의 연결에 의해서 건축전문교육 4+2=6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 건축 설계교육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대학원 진입시 설계학점이수와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다.

건축공학교육의 전문화와 건축설계교육

4+2년의 설계전문교육체제와 건축공학교육의 전문화는 별개의 문제이다. 필자는 건축공학교육의 전문화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좋든 싫든 이것 역시 국제화의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설계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학교로서 공학으로의 특화가 가능한 학교는

그렇게 하면 된다. 또 학교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조건이 된다면 4년 학부 내에 전공을 분리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하여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다. 어쨌든 건축공학교육의 전문화와 설계전문교육을 대학원 중심으로 하는 것은 상치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설계전문교육을 대학원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건축공학의 전문화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설계전문교육을 학부에서 완성하느냐 대학원에서 완성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인증의 문제

설계전문 학위를 대학원 중심으로 하더라도 인증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인증의 대상은 전문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므로 4+2년제 하에서 학부4년은 인증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부 4년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다. 우선 설계중심의 건축교육이어야만 대학원과의 연결이 가능한 것이며, 그 학부 프로그램의 질은 결국 대학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원들은 학부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른 평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하바드 건축대학원은 같은 학부 건축과 4년 과정이라도 버클리를 졸업하면 2년 반의 석사과정에 진입이 가능한데 MIT 졸업생은 3년 반을 해야 한다. 설계스튜디오의 학점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MIT 졸업생은 다른 건축대학원의 2년 석사과정에는 진입할 수 있고 NCARB의 학점기준도 만족시킬 수 있어 전문학위를 받는다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인증은 교육의 내용을 보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교육의 양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교육의 양에 대한 기준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NCARB가 유일인데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별 학점(160종 설계는 50)은 학부4년(약 140학점)과 대학원(약 60학점)의 전문과정을 합치면 충분하다. 물론 학부에서 설계학점을 충분히 이수하지 않으면 이 기준에 의해 대학원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수와 다수의 관계

건축설계의 수요를 생각할 때 현재 약 100개의 건축과 중에서 설계전문인력을 약 10~15%라고 본다면, 과정에서의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약 2~30개의 건축 설계전문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물

론 이것은 보다 정확한 수요의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또 많은 학교들이 전문학위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재정적 부담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즉, 어차피 5년제든 전문대학원이든 건축설계의 전문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는 현실적으로 소수와 다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개혁의 방향은 소수와 다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학부 5년제가 대학원 중심제 보다 배타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 경우 4년제로 남은 학교는 건축공학으로 가든지 아니면 상위교육으로의 진입이 봉쇄되어 존립이 어렵게 된다. 그러나 대학원 중심이 되면 4년제 이후 소질있는 학생들이 적성을 검증 받은 후 대학원으로 흡수될 수 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다. 하지만 개혁의 방법은 선택의 문제이고,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이다. 필자는 어느 사회이든 변혁의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영원히 탈락되는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하고, 또 그들이 새로이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 융통성과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건축교육의 개혁도 2대 8의 사회의 또 다른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원 중심의 사다리꼴 구조

개혁의 방향을 강요할 수는 없다. 결국은 각 대학이 현실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고, 어차피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개혁이 아니라면 5년제, 4년제, 전문대학원이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위권의 주요대학들이 대학원 중심으로 가고, 중간권의 여력이 있는 학교들이 특성화된 5년제를 할 수 있다면 국가 전체로 보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체제가 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기존의 건축대학원이 있고 또 앞으로 건축대학원이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상위권의 여력이 있는 학교가 대학원 중심으로 가는 것이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왜냐하면 주요대학이 대학원 중심으로 가면 4년제 학부를 마치고 전문대학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4년제 학교간의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개혁과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 조건이 갖추어진 중위권의 학교에서 학부 5년제를 실시하면 전문학사를 마친 후 상위권 대학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기획의

다양성과 평준화라는 점에서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 체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대의 개혁의 방향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가 학부 5년제로 가면 서울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위권의 학교들이 사리를 깊이 따지기 전에 5년제를 쫓아갈 것임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거의 명백하다.

필자가 4+2년의 대학원 중심제의 장점을 주장하는 것은 필자가 속한 전문대학원의 입장과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필자는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상위권 학교들이 대학원 중심으로 가면 한정된 수요에서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므로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제안한 사다리꼴 구조가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다른 학교의 문제에 왜 왈가 불가 하느냐고 한다면 할말은 없다. 하지만 UIA 대응 문제는 개별 학교들의 문제이기도 앞서 국가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나라 건축 교육 전체의 문제이다. 이 시대를 고민하는 젊은 건축학 교수의 한사람으로서 필자는 개별 학교의 입장보다는 우리 나라 건축교육 전체를 위해서 어떠한 개혁의 방향이 더 합리적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공론화가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필자의 글이 끼칠 수 있는 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이 가지 못한 채 평소의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5년제를 준비해온 다른 분들의 생각을 오도하는 것이 절대 필자의 의도가 아니었으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서투름이나 잘못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 또 이 글을 쓰며 필자 또한 범했는지 모를 오류에 대해 엄격한 지적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아무쪼록 필자의 글이 앞으로 한국건축 교육체제의 개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합리적 방향을 모색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필자의 입장에 대해 좀 더 해명할 수 있도록 사소한 글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를 표한다.